김정택

Gym Jungtaek | 야구선수

전체 프로필

프로필

출생	1992. 서울특별시
신체	190cm, 87kg
가족	형 김정록
데뷔	2014년 LG 트윈스 입단
경력	2018 연천 미라클
	2017 도치기 골든브레이브스
	2017 군마 다이아몬드 페가수스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한국의 야구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학동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일본 유학 갔다가 중간에 다시 신일고등학교에 전학을 와서 학창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마추어에서 코치를 하면서 학교생활을 지켜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엘리트 체육 문화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서 야구만 하는 학생은 없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학업에 어느 정도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은 일본 학교에서 생활을 하였을 때 최저학력에 걸려서 야구경기를 못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천천히 시행되고 있는 최저학력이라는 족쇄 때문에 아이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이중성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야구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아이의 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많은 코치들이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부도 해야 하므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 시키는 도중 포기해도 감독, 코치가 강한 조치를 할 수 없기에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만 이끌고 가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레슨장이라는 많은 센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레슨장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기본기, 공이 빨라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능과 신체 능력이 좋은 아이들을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을 채워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야구의 최대 단점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를 못가면 많은 아이들이 실패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능의 개화는 사람의 따라 다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재능을 발휘 못해 프로에 못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신체능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충분히 대학교 2,3학년 때 스스로 자기의 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공부까지 같이 병행해야 하니 극한으로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느낀 야구로는 여러 방면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려는 거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학업을 다 끝내고 야구를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연습시간이 3~4시간 정도 소요하고, 그리고 야간 훈련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건 자율야구인데 본인이 느꼈을 때 자율이 아닌 자유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았습니다. 야구는 팀플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자유롭게 해선 안 되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과 자유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올리고 싶으면 올라운드 아카데미로 오세요.
문의 010 8274 1581